

SK케미칼, 전자 구매시스템 가동

Web 기반 <SKYebid> 7월 가동 ... 구매원가·시간·비용 절감 추구

정밀화학 및 생명과학 전문기업인 SK케미칼(대표 홍지호)이 Web 기반의 전자구매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의 고비용의 구매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SK케미칼과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2004년 7월부터 본격 가동된 SKYebid(www.skyebid.com)를 통해 Web상에서 자유롭게 접속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

SKYebid의 도입으로 사내·외 구매 관련 <문서 없는 거래>가 현실화되고 Off-line 미팅 횟수와 팩스 및 우편 등의 단순반복 업무가 줄어 구매비용의 절감을 추구했으며, 경영투명성 제고와 공급자의 접근 용이성이 한층 개선됐다.

최적화 구매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는 4가지로 Partnership management(공급업체 등록/사후평가), e-Bidding(자재입찰, 공사입찰, 단가계약입찰), e-transaction(전자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Desktop Purchasing(전자문서 조회, 제품 및 화학기술 정보 공유)이다.

이밖에 내부 경영정보시스템(MIS)과의 유연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협력업체관리가 윈스탑으로 가능하게 됐다.

SK케미칼은 “화학산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최적의 가격수준으로 적기에 공급하는 구매업무로 SKYebid는 시간과 원가의 효율성을 최적화한다는 측면에서 복잡한 화학원료 구매업무를 세련된 비즈니스로 바꿔놓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SK케미칼은 구매업무의 최적화를 위해 2000년부터 꾸준히 프로세스를 개선해오는 과정에서 SK-No로 관리하던 구매품목을 글로벌 수준에 접목할 수 있도록 세계표준 자재분류체계를 도입해 자재코드 방식으로 개선했다.

단가계약을 통한 프로세스의 개선을 추구해 공급기업과 Win-Win Partnership을 구축하기 위한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적용한 전자구매시스템을 앞서 도입했다. <주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20>